

시론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2박 3일간의 타 지역 연속 강연을 마치고 돌아왔다. 다음 날에도 인근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강연을 해야 했다. '내가 왜 이리 살 아갈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그런데 강연장에서 모든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캄캄 선물을 받았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다가오더니 살며시 하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교수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 수업을 들었던 제자라고 소개하고는 수줍게 편지를 건네고 다른 연수생들 사이로 사라졌다. 사진이라도 같이 찍자고 할 걸 미처 그리하지 못했다. 제자의 긴 편지를 읽다 보니 시간을 훌쩍 넘어 30여 년 전으로 타임슬립을 한 기 분이다. 일부 내용을 발췌·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님, 이번 연수 계획서에서 교수님 성함을 보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무척 반가웠 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광주교대 2학년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감명받았던 제자입니다. 교수님이 광주교대 교수로 임용되던 첫째 학

생으로 만나 뵈고, 퇴직을 하신 첫해에 다시 학생으로 만나뵈었습니다.... 다른 수업과 달리 매시간 몰입해서 눈을 빛내며 들었던 유일한 과목이 교수님 강의였습니다. 비록 한 학기 동안이었지만 교육에 대해,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번쩍 뜬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할 때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교수님의 눈과 열정적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편지 안에 동봉한 또 다른 글을 보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다. 대학원 공부도 했고, 이제는 장학사를 거쳐 교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교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편지 글귀가 와 닿았다. 매 학기 종강날이면 제자들에게 주었던 ‘제자를 보내며’라는 편지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들어 있다.

우리 조상의 생몰학적 정보가 유전자를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전달되었듯이 가르침의 길에 선 우리의 신념과 열정, 그리고 지혜는 ‘میم(meme)’을 통해 나의 스승에게서 나를 거쳐 여러분에게로,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제자를 통해 그 끝을 알 수 없는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화유전자 맘을 전수받은 제자가 나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이렇게도 자랑스럽게 내앞에 나타났나.

살다보면 세상이 얼마나 좁은가를 알 수

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도, 고등학교 동창도, 우연히 소개받은 사람들도 내 이름과 근무처를 알게 되면 곧바로 자기가 아는 교대 출신 지인들에게서 들었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듣다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제자도 있으리라. 그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늘 열심히 지냈다. 결국 부족함을 줄이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됐다.

얼마 전 있었던 교수 대상 강연에서 해당 대학 교무처장이 이런 말을 해왔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굳이 AI와 같은 새로운 것들 배우지 않고 좀 버티다가 퇴직하려고 했단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내가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 관련 책을 내고 강연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30여 년 후에 마주치게 될 어떤 분이 당시 나와서의 만남 덕에 세상을, 그리고 교육을 새롭게 보며 열심히 살아오게 되었노라는 전언을 듣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선가는 나와서의 만남을 기억하며 훌륭한 스승으로 자신을 가꿔 가고 있을 분이 있으리라는 희망이 다시 생긴다. 오늘 제자가 건넨 하얀 편지 봉투는 퇴임 후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열정의 샘이 됐다.

가방 멘 엄마의 뒷모습

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가 큰 까닭이다. 내가 해주지 못했던,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을 엄마와 아빠가 나 대신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이 자리한다. 만약 엄마와 아빠가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아이는 지금은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한다. 나는 그동안 아빠와 애정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하지 못했던 것을 손녀인 내 아이와 함께 나누신다.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간식을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한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고 따뜻하다. 그 옆에서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그 시간을 함께 한다. 삶의 어느 시기에선가 멈춰 있었던 사람의 표현이 지금은 세대를 건너 흘러가고 있다.

오늘따라 아이의 책가방을 메고 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의 인생이 사진처럼 펼쳐진다. 엄마의 지난 세월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다. 일곱 남매의 맏딸로 태어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했다. 첫 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옛 사람들의 뿌리 깊은 인식에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리고 동생 학업 뒷바라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엄마라고 꿈이 없었을까. 분명 소녀 엄마는 꿈을 갖고 있었을 거다.

그 어린 시절의 꿈을 꾸듯 ‘학교 가는 엄마’가 내 눈앞을 지나가고 있다. 어쩌면 엄마에게 책가방은 배움의 기회이자 놀이고 지나간 꿈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 책가방은 손녀의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바램과 사랑이 함께 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또 아려온다.

돌봄은 세대를 건너 이어진다. 부모가 나를 길렀고, 이제는 부모가 내 아이를 기른다. 그 시간의 고리 안에서 나는 일과 가정 사이를 오가며 또 다른 세대의 짐꾼다리가 되고 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자란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 문화는 결국 이런 일상의 결에서 비롯된다. 삶 속의 작은 행동과 시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관계의 온도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문화의 형태다.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한 노모의 뒷모습 속에 세대의 역사와 감정,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은행일이 우수수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본 엄마의 뒷모습이 오래 오래 남는다. 그 길 끝에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곁을 뒤에는 또 내가 서 있다. 그렇게 세대는 이어지고, 사랑은 다시 태어난다. 책가방 하나에 실린 세월의 무게가 오늘따라 따뜻하면서도 또 아픈게 느껴진다.

화목보일러, 방심이 ‘화마’ 부른다

한 초기 대응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연료비를 아끼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장작을 넣거나 젖은 나무를 사용해 연통에 타르가 쌓이게 방치하는 경우, 그리고 보일러 주변에 빨간 등 가연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화마(火魔)를 부르는 주원인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다음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보일러 주변 1m 이내에는 장작이나 비닐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연료는 충분히 건조된 장

작을 적정량만 사용해야 한다. 셋째, 연통은 타르가 쌓이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균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신속한 대피를 돕고,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맛먹는 초기 진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은 지났지만, 화재 예방에는 침착과 인내가 필요하다. 한 번의 점검과 관심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항소방서 역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내년도 국비 최다 확보한 광주·전남 전성시대 예고

역대 최다액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확보한 2025년 정부 예산은 각각 3조9천497억원, 10조42억원에 이른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다.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필요성과 논리로 설득했으며, 여야 의원 간담회 등을 계속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덕분으로 보인다.

광주는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등 ‘부강한 도시’로 전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용역비, AI데이터센터 고도화, AI 영재학교 설립 등을 통해 AI 중심도시로 대도약을 예고했다. 5·18 구묘역을 국민적 추모와 K-민주주의 신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도 다졌다. 국비 10조원을 돌파한 전남은 차세대 에너지, AI 첨단 농수산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국립 김산읍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남해안권 관광 허브를 위한 남부권 광역개발도 동력을 얻었다.

이재정 정부의 첫 예산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며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AI산업, 전남은 에너지산업의 날개를 달았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에 감액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매출 보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다. 광주 상생카드나 전남 사랑상품권 발행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적중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시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상반기 중 70%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국비 확보를 위해 쏟아부은 역량을 재결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강한 광주’, ‘전남 황금시대’를 향한 여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국가 표준모델 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의 우수성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 한 명의 시민도 배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공공정책이다. 광주시는 2023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약 2만5천을 지원했다. 특히 시행 이후 고독사 발생 건수가 20%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의료를 결합한 3세대를 선보였다. 방문간호·구강교육을 신설하고 맞춤형돌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시민평가단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한 2025년 베스트10 정책에 통합돌봄 시즌3가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첫째 시즌으로 수상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영예를 안은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2위는 통합건강센터와 광주형 응급의료체계를 만든 ‘광주형 공공의료’, 3위 AX실증밸리 등 ‘AI중심도시’, 4위 ‘국가 제2호 거점동물원 유치공헌 조성’, 5위 광천터미널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순이었다.

광주시는 앞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시민들과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도록 설계되고 실행해야 한다.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를 걱정하는 연대의 가치를 더더욱 제고해야 한다. 이번 베스트 경진대회에서도 시민의 체감도와 실질 성과가 높은 시책이 선택을 받았다.

대한민국 대표 K-복지로 자리매김한 통합돌봄이야 말할 것도 없다. 고립과 은둔의 사회적 해법을 제시한 국가 표준모델로 평가돼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노쇠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수많은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을 망라해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사례 청취를 위해 광주를 찾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행복하고 더 건강한 광주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시가 내년 국비 확보의 최우선에 뒀던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초예산도 넉넉히 확보했다. 빛나는 내일을 담보할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지 바란다.

다카시 광장

거울 효과

김성룡

내가 너를 향해  
싱긋 미소 지으면

너는 나를 마주 보며  
함박웃음 터트리지

※시작노트

백양사생계루 골짜기에  
가을이 고스란하다  
매미소리 함께 지나온  
소란스러운 폭염의 한철  
문득 자신의 모습이 궁금하여  
들여다본계곡  
군건하게 건디었구나

특의만면

시절 한자락  
웃음 한 폭담아오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현장칼럼



문 병 운  
장항소방서장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와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장항에서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달 장항군의 한 주택 화목보일러 주변에서 불씨가 번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거주자가 평소 비치해 둔 소화기를 즉시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며 큰 피해를 막았다. 이 사례는 평소의 대비와 신속